

1) 교육·의료사업

순천 선교기지 개설로 인해 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사 변요한과 고라복 목사가 1910년 4월 순천 금곡동 사숙에서 학생들을 모아 개교를 하였다. 다음해 매곡동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1913년 9월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사립 '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고라복 목사가 설립자 겸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이들 선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비 조달과 기술교육을 위해 매산학교에 제재소를 만들어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늦쇠 제조, 토끼 사육법 등을 가르쳤다. 벤스 부인은 학생들이 실습기간에 만든 물건들을 미국에 팔 수 있도록 주선하여 1927년 한 해 동안 5만 6,000개의 종이인형을 판매했다고 한다.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허가신청을 낼 때는 모든 규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성경 교육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어 1916년 6월 은성학교는 자진 폐교하였다. 이때 조선총독부에서는 구레인 선교사에게 “귀하의 학교가 교과 과목에서 종교교육 과목을 제거하지 않고 설립 허가신청을 낸 것은 분명히 현행법상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나는 귀교에 대해 교육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바이다.”라는 경고문을 보내왔다. 그래서 종교교육 제한정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학교문을 닫고 말았다.

1921년에 이르러 데라우치 총독이 물러가고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면서 회유정책으로 '문화정치'를 실시하자, 1921년 4월 15일 성경을 정과로 하여 교육하는 학교로 인가를 받아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개교하였다. 1937년 일본은 소위 국민정신통일이라는 명목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여 1937년 9월에 다시 폐교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1946년 9월 24일 다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순천 의료선교의 개척자는 팀몬스 의사와 그리이였다. 이들의 진료는 1913년 건축사업 감독을 위해 사무실용으로 만든 조그마한 판잣집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6개월 동안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6~7자(척)의 조그만 방에서 진찰과 수술, 간호까지 해야만 했다. 1915년에는 35개의 침대를 갖춘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설계와 시설을 갖춘 '안력산(알렉산)병원'이 개원되었다. 좋은 시설이 생겨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으나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이들을 돌보던 의사들이 과로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팀몬스 의사가 휴양차 귀국하자 광주에서 일하고 있던 월슨 의사가 광주와 순천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극빈자들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되자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계몽과 복음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1937년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품고 미국인 경영기관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외인 배척의 목적으로 선교사들을 항상 미행하다가 1940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병원 경영자인 로제세 의사를 추방함과 동시에 1940년 11월 병원을 폐지시키고 말았다.

한편 순천노회 경내에 있다가 노회가 분립됨으로써 '여수노회' 경내에 속한 '애양재활병원'도 순천지역 의료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애양재활병원은 싸이트 박사가 광주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나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여 나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 1909년 4월 25일 광주 제중병원 월슨 의사가 당시의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나병원을 설립하고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처음 70여 명에 이르는 환자가 1922년에는 600여 명에 이르자, 1925년 11월 9일 여천

군 울촌면 신평리 1번지에 정착하였다.

윌슨 의사가 초대 원장이 되고 631명의 환자와 더불어 '윌 윌푸 나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다. 1936년 3월 15일 '여수나병원'으로 개칭하고 700여 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이들의 다시 없는 안식처가 되었다. 그러나 1941년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윌슨 원장이 귀국하고 타마자 선교사가 원장으로 취임했으나 결국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타마자 원장마저 귀국하였다. 전쟁 중에는 '조선경찰협회전남후원회'와 '조선나예방협회'에서 담당, 운영하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윌슨 원장이 내한하여 군정청 나관리 국장에 취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하였다.

1948년 4월 11일 병원 운영권이 다시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로 이관되자 원장에 보이얼 선교사가 취임하게 되었다. 환자수가 1,100여 명에 달하자 보이얼 원장은 본국 친지들의 기부를 받아 병사 증축과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착공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일단 중단되었다가 수복 후 계획대로 완공했다. 1962년 정부의 지시로 음성 환자 정착지로 전북 남원 대정리에 30동, 여천군 울촌면 신평리에 12동,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에 10동을 세워 227명을 입주케 하였다. 1965년 9월 원장 보이얼 선교사가 정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2년간 정형외과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미국 교회로부터 12만 불의 기부금을 얻어 현대식 2층 건물 430평을 건축하고 기존의 나환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소아마비, 피부과, 안과 환자를 치료하였다. 1967년 8월 30일자로 정부의 인가를 얻어 '여수에양재활병원'이라 변경하고 도성래 원장이 병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여수노회 경내에 속해 있지만 아직도 순천노회 전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